

第250回國會
(定期會)

國會本會議會議錄

開會式

國會事務處

2004年9月1日(水) 午後 2時 開式

제250회국회(정기회)개회식순

1. 개식
2. 국기에 대한 경례
3. 애국가 제창
4.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5. 개회사
6. 폐식

(14시06분 개식)

○의사국장 노재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50회국회(정기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이어서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전주곡에 따라 1절을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다음은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묵념은 묵념곡에 따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묵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국회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김원기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최종영 대법원장, 윤영철 헌법재판소장, 이해찬 국무총리, 유지담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전윤철 감사원장, 국무위원과 내빈 여러분, 그리고 동료 국회의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또 하나의 역사적 현장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개원한 제17대 대한민국 국회가 오늘부터 그 첫 번째 정기회의를 갖게 됩

니다.

저는 의장으로서 이번 정기국회가 우리 의회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는 대단히 뜻 깊은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는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서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되살아나고, 국회에 대한 국민적 신망이 두터워지는 소중한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국내외적으로 많은 도전과 시련 앞에 직면해 있습니다.

세계는 지금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냉엄한 국제질서에 지배되고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배타적 민족주의와 이질문명 간의 충돌로 매우 불안정한 국제정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도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과거의 불합리한 권위주의는 해체됐지만, 자율과 책임이 수반되는 새로운 민주적 질서는 아직 확립되지 못했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 사회는 지금 과도기적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경제를 회복시키는 일 또한 대단히 시급합니다. 그 어떤 경제지표도 국민이 느끼는 체감만큼 정확하지는 못합니다. 고통받고 있는 중소기업과 영세상인, 서민과 소외계층을 살릴 수 있는 특단의 노력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여야 국회의원 여러분!

제17대 국회는 이처럼 엄중하고 중차대한 시기

에 국민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첫 번째 정기회의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그 소임과 책무가 막중하다 아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더욱이 제17대 국회야말로 반세기 우리 의회에서 입법부의 위상과 권능을 명실상부하게 갖춘 최초의 국회입니다. 정권이든 당권이든 그 어떠한 외부 권력의 간섭이나 통제도 더 이상 있을 수 없습니다.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른 독립성과 자율성이 철저히 보장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제17대 국회는 자부심과 함께 국민과 역사 앞에 더욱 큰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국회가 또다시 역할과 사명을 다하지 못한다면 이제 그 어디에도 책임을 돌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야말로 모름지기 국회가 정치의 중심이 되고, 국정的主축이 돼야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그러한 비상한 결의를 가지고 이번 첫 정기국회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저는 의장으로서 우리 17대 국회가 반드시 그러한 소임과 책무를 다할 수 있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17대 국회는 출발부터가 과거와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기 계신 의원 여러분은 과거처럼 당권을 독점한 제왕적 지도자에게 공천을 받지 않았습니다. 국민 경선과 같은 투명하고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후보가 되었고, 사상 유례 없이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통해서 국민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국민 말고는 그 누구도 의식할 필요가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여건 아래서 이미 변화는 시작됐습니다. 지난 6월 개원한 이래 석 달 동안 우리 국회는 과거와는 확연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생각도 못 했던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서 원 구성이 이루어졌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50여 개의 의원연구모임이 새로 발족했습니다. 회기가 아닌 날에도 쉽 없이 상임위원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국정에 대한 의원들의 열의와 노력이 국회의사당에 넘쳐 나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 첫 정기국회야말로 달라진 국회의 모습을 국민에게 여실히 보여 드릴 수 있는 첫 무대가 될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더욱 분발합시다. 이번 정기국회가 역사상 가장 생산적이고 능률적인 국회가 되

도록 힘을 모읍시다. 나라와 국민을 위한 일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고, 정파가 나뉘질 수 없습니다. 여당은 집권의 책임을 다하는 성숙하고 안정된 모습을 국민에게 보이고, 야당은 국정의 동반자로서 건전한 견제와 협력을 조화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국민은 국회의 변화된 모습에서 희망의 단초를 발견할 것입니다. 어려움을 딛고 새롭게 일어설 용기와 힘을 얻을 것입니다.

저는 의장으로서 국회가 본연의 역할을 다하고 의원들이 더욱 내실 있는 의정 활동을 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국회가 사회 갈등을 수렴하고 정치의 중심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전문 역량의 확보와 이에 수반되는 비용 지출이 불가피합니다. 그동안 우리 국회가 하는 일 없이 예산만 쓴다는 여론의 질타가 있었던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 예산은 규모가 작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보다도 작은 것이 현실입니다.

국회가 거듭나는 시점에서 일을 더 잘하기 위한 비용이라면 아끼지 말아야 나라 전체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제17대 국회는 개원 이래 16대 국회의 같은 기간에 비해 의원입법 발의가 4배로 늘었습니다. 이와 같이 활발한 입법 활동을 충실하게 지원하기 위해서 우선 입법지원처의 신설을 이번 정기국회 회기 중에 구체화시킬 것입니다. 이와 함께 의원들의 정책 개발을 위한 예산 지원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관심도 크고 비판도 많은 의원 외교 활동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거의 의원외교는 실제로 문제가 적지 않았습니다. 의원들이 해외에 나가면 일하러 나가는 것이 아니라 놀러 간다는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17대 국회에 들어서서는 근본적인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외교 현안에 대해 국회와 정부의 긴밀한 협력과 정보 공유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정부가 나서기 어려운 국가적 현안을 의원들이 앞장서서 해결하는 효과적인 역할 분담과 현안 대응 외교가 실현될 것으로 믿습니다. 의원외교를 반드시 내실 있고 투명하게 만들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해야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동안 우리 정치는 불신과 지탄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정치인 스스로의 책임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우리 정치는 엄청난 변화를 이뤄가고 있습니다. 변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받들어서 환골탈태의 아픔도 감수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이 격려하고 성원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비판할 것은 비판하고 질책할 것은 질책하되, 정치가 올바른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을 때에는 박수를 보내 주셔야 변화가 더욱 촉진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언론의 역할이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우리 정치가 이루고 있는 여러 긍정적인 변화들을 국민들이 올바르게 평가할 수 있도록 언론이 책임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비판은 언론 고유의 역할입니다.

그러나 비판과 부정이 지나쳐서 국가와 사회에 대한 국민의 애정이 사라지고 의욕이 저상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시민사회에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시민사회는 그동안 우리 사회의 인권 신장과 참여 민주주의 발전에 크게 공헌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민의 커다란 존경과 신망을 쌓아 왔습니다. 그 결과, 지금 우리 시민사회는 세계 어느 나라 못지않은 사회적 위상과 영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시민사회도 그러한 위상에 걸맞은 보다 책임 있는 자세와 역할, 그리고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이니만큼 우리 시민사회가 위기 극복을 위한 국민적 합의와 역량을 모으는 데 항도적 역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국회의원을 비롯한 여야 정치인 여러분!

최근 일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 정당들의 행태는 새로운 정치를 바라는 국민적 기대에 어긋나고 있습니다. 지난 4월의 총선거를 전후로 모처럼 조성됐던 상생의 분위기에 크게 위배되고 있습니다.

상대 정당에 대해서 금도를 넘는 무한 공격이 이어지는가 하면, 시대적 대의와 명분을 가진 문제조차 당리당략에 의해 정쟁의 대상이 되고 마는, 이러한 구태의연한 모습이 또다시 일부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그 같은 정치권의 행태로 인해서 국회의 위상

이 높아지고 정치에 대한 국민 신뢰가 회복될 수 있는 이 절호의 기회가 다시금 무산되지 않을까 심히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각 정당들은 국회를 통해서 정책으로 경쟁하고 정책으로 평가받아야 합니다. 정당 간의 이진투구는 결국 정치 전체에 대한 국민의 혐오와 불신만을 키울 뿐입니다. 길게 보면 결코 자기 당에도 이로울 게 없는 것입니다. 국민이 없으면 정치도 없고 여야도 없다는 것을 여야 정치인들이 다시 한번 명심해 주기를 바랍니다.

정치 관계 법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총선 전에 정치개혁을 한 단계 진일보시키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정당법의 개정이 그것입니다. 그 결과 선거혁명이라고 불릴 정도로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실현됐습니다.

그러나 지금 정치권과 언론, 시민단체와 학계, 그리고 선거를 직접 관리했던 선거관리위원회까지도 정치 관계 법의 일부 비현실적인 내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부 조항이 후보자의 활동과 국민의 알권리를 지나치게 위축시키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도 있습니다.

이번 정기국회 중에 충분한 검토와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이 문제를 합리적으로 풀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정당들이 직접 나서기 어렵다면 의장으로서 필요한 역할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변화는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생존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변화하지 않으면 곧바로 퇴보하고 마는 엄중한 상황에 우리는 놓여 있습니다. 바꿀 것을 바꾸지 않을 때 사회도 발전할 수 없고, 역사도 진보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개혁은 이 시대의 가장 긴요한 과업이요, 요청인 것입니다.

그러나 변화와 개혁은 언제나 국민과 함께 가야 합니다. 국민의 동의와 협력이야말로 개혁 성공의 절대조건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국민을 설득하고 국민과 함께 호흡할 때만이 개혁은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국회의원 여러분!

이제 우리 17대 국회가 변화와 개혁의 산실이 되도록 합시다. 국민을 위하고 이 나라를 발전과 도약의 길 위에 세우는 참다운 변화를 국민과 함께 이루어 나갑시다.

이 나라와 민족의 일백년 장래를 설계하는 역사적 책무를 다해 냅시다. 이번 첫 정기국회가 그 첫걸음이 되도록 합시다. 그리하여 국민에게 믿음을 주고 희망을 드립시다.

감사합니다.

○의사국장 노재석 이상으로 제250회국회(정기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4시25분 폐식)

○參席議員(287人)

강 기 갑 강 기 정 강 봉 균 강 성 중
 강 재 섭 강 창 일 강 혜 숙 고 경 화
 고 진 화 고 흥 길 공 성 진 곽 성 문
 구 논 회 권 경 석 권 선 택 권 영 길
 권 영 세 권 오 을 권 철 현 김 광 원
 김 교 흥 김 근 태 김 기 석 김 기 춘
 김 기 현 김 낙 성 김 낙 순 김 덕 규
 김 덕 룡 김 동 철 김 맹 곤 김 명 자
 김 명 주 김 무 성 김 문 수 김 병 호
 김 부 겸 김 석 준 김 선 미 김 성 곤
 김 성 조 김 애 실 김 양 수 김 영 덕
 김 영 선 김 영 숙 김 영 주 김 영 춘
 김 용 갑 김 우 남 김 원 기 김 원 웅
 김 재 경 김 재 원 김 재 윤 김 재 흥
 김 정 부 김 정 훈 김 종 료 김 종 인
 김 진 표 김 춘 진 김 충 환 김 태 년
 김 태 흥 김 태 환 김 학 송 김 학 원
 김 한 길 김 혁 규 김 현 미 김 형 오
 김 형 주 김 흥 일 김 호 석 김 희 선
 김 희 정 남 경 필 노 영 민 노 웅 래
 노 현 송 노 회 찬 단 병 호 맹 형 규
 문 병 호 문 석 호 문 학 진 문 희 상
 민 병 두 박 계 동 박 근 혜 박 기 춘
 박 명 광 박 병 석 박 상 돈 박 성 범
 박 세 일 박 세 환 박 순 자 박 승 환
 박 영 선 박 재 완 박 종 근 박 찬 석
 박 찬 숙 박 창 달 박 혁 규 박 형 준
 박 흥 수 박 회 태 배 기 선 배 일 도
 백 원 우 변 재 일 복 기 왕 서 갑 원
 서 병 수 서 상 기 서 재 관 선 병 렬
 손 봉 숙 송 영 길 송 영 선 신 계 료
 신 국 환 신 중 식 신 학 용 심 상 정
 심 재 덕 심 재 업 심 재 철 안 경 료
 안 명 옥 안 민 석 안 병 업 안 상 수
 안 영 근 안 택 수 안 흥 준 양 승 조

양 형 일 엄 호 성 염 동 연 오 영 식
 오 제 세 우 상 호 우 윤 근 우 제 창
 우 제 항 원 혜 영 원 희 룡 유 근 찬
 유 기 준 유 기 흥 유 선 호 유 승 민
 유 승 희 유 시 민 유 인 태 유 재 건
 유 정 복 유 필 우 윤 건 영 윤 원 호
 윤 호 중 이 강 두 이 강 래 이 경 숙
 이 경 재 이 계 경 이 계 안 이 계 진
 이 광 재 이 광 철 이 군 현 이 규 택
 이 근 식 이 기 우 이 낙 연 이 덕 모
 이 명 규 이 목 회 이 미 경 이 방 호
 이 병 석 이 상 경 이 상 득 이 상 락
 이 상 민 이 상 배 이 상 열 이 석 현
 이 성 권 이 승 회 이 시 종 이 영 순
 이 영 호 이 용 회 이 원 영 이 윤 성
 이 은 영 이 인 기 이 인 영 이 재 오
 이 재 웅 이 재 창 이 정 일 이 종 결
 이 종 구 이 주 호 이 철 우 이 한 구
 이 해 봉 이 해 찬 이 해 훈 이 호 웅
 이 화 영 임 인 배 임 종 석 임 종 인
 임 채 정 임 태 회 장 경 수 장 복 심
 장 영 달 장 향 숙 전 병 현 전 여 옥
 전 재 희 정 갑 윤 정 덕 구 정 동 채
 정 두 언 정 몽 준 정 문 현 정 병 국
 정 봉 주 정 성 호 정 세 균 정 의 용
 정 의 화 정 장 선 정 중 복 정 칭 래
 정 형 근 정 화 원 제 중 길 조 경 태
 조 배 숙 조 성 래 조 성 태 조 승 수
 조 일 현 조 정 식 주 성 영 주 승 용
 주 호 영 지 병 문 진 수 희 진 영
 천 영 세 천 정 배 최 경 환 최 구 식
 최 규 성 최 규 식 최 성 최 순 영
 최 연 희 최 용 규 최 인 기 최 재 성
 최 재 천 최 철 국 한 광 원 한 명 숙
 한 병 도 한 선교 한 화 갑 허 천 형
 흥 창 선 황 우 여 황 진 하

○請暇議員(9人)

강 길 부 나 경 원 박 진 신 기 남
 우 원 식 장 윤 석 채 수 찬 허 태 열
 흥 준 표

○來賓參席者

대 법 원 장 최 중 영
 헌 법 재 판 소 장 윤 영 철
 국 무 총 리 이 해 찬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유	지	담
감 사 원 장	전	윤	철
부 총 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	병	영
법 무 부 장 관	김	승	규
국 방 부 장 관	윤	광	웅
과 학 기 술 부 장 관	오		명
문 화 관 광 부 장 관	정	동	채
산 업 자 원 부 장 관	이	희	범
정 보 통 신 부 장 관	진	대	제
보 건 복 지 부 장 관	김	근	태
환 경 부 장 관	곽	결	호
여 성 부 장 관	지	은	희
건 설 교 통 부 장 관	강	동	석
해 양 수 산 부 장 관	장	승	우
재 정 경 제 부 차 관	김	광	림
통 일 부 차 관	이	봉	조
외 교 통 상 부 차 관	최	영	진
행 정 자 치 부 차 관	권	오	룡
농 립 부 차 관	김	주	수
노 동 부 차 관	박	길	상
기 획 예 산 처 차 관	변	양	균

○제250회국회(정기회)집회공고

일 시	2004년 9월 1일 오후 2시
집회근거	헌법 제47조제1항 및 국회법 제4조
공 고 자	국회의장 김 원 기

(8월27일)